

영국 번호이동성 지침 발표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구자춘
(T. 570-4292, jachoon@sunnet.kisdi.re.kr)

최근 영국의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s)과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EC '98년 번호지침의 번호이동성 조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면허의 개정을 위한 번호지침에 대한 자문문서를 발표하였다. EC의 번호지침은 통신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경우 유선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전환할 때 그들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번호이동성은 지역번호나 무료전화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동일거주지 내에서 서비스제공사업자를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C의 '98년 번호지침에서는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서비스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영국은 1996년부터 특정지역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에 대해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는 이외의 다른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번호이동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번호이동성은 1999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현재 번호이동성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강제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영국의 번호이동성 도입 경위

구 분	내 용
1991년 3월	DTI의 백서 “경쟁과 선택: 1990년대의 전기통신정책”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번호이동성 도입 천명
1991년 7월	Oftel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유선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BT의 면허조건을 개정
1994년 1월	Oftel이 번호이동성 구현방안 제시
1996년 7월	BT의 면허조건을 변경하여 유선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 제공을 의무화
1997년 12월	모든 유선전화사업자들에 대해 유선전화와 무료전화 등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공을 의무화하는 면허조건 변경을 결정
1999년 1월	이동전화사업자 번호이동성 제공
2000년 1월	모든 유선전화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공의 의무화 예정

금번 발표된 번호지침은 EC의 번호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번호이동성 부여를 위한 면허조건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번호지침의 적용대상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들이다. 즉 유선망사업자와 모든 유선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설비미보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을 포괄한다. 대상 전화번호의 범위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모든 유선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권고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00년 1월 1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면허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며, 설비미보유 사업자의 경우 Oftel 청장이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시행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번호이동성은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변경없이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변경을 촉진한다. 사업자 변경이 활성화되면 시장측면에서는 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폭이 넓어져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1] "Change Phone Company, Keep your Number", Oftel, 1999. 10. 22.
- [2] "Developing Number Administration", Oftel, 1998. 7.
- [3] "Numbering Directive: Number Portability Requirements", Oftel, 1999. 10.

호주 주파수 경매 동향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연구원 권오상
(T.570-4086, kweonos@sunnet.kisdi.re.kr)

1. 개 요

호주 ACA는 9월 28일 1.8GHz와 800MHz대역의 주파수를 2000년 초반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호주에서는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가 1999년 12월 31일 대부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해 할당되었던 800MHz 대역의 주파수 5MHz × 2가 남게 되는데 이들 주파수는 2000년 초반 있을 경매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재할당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주파수 경매제도의 전반적인 모습과, 1998년에 있었던 주파수 경매의 결과, 그리고 향후 주파수 경매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아날로그 이동전화의 1999년